

Tim Gombis 박사, 갈라디아서 , 세션 2, 갈라디아서 1:1-10, 이 편지의 서론

© 팀 고킴비스 (Tim Gombis)와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의 서문인 갈라디아서 1. 1-10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서문을 읽었다면 이 편지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편지가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아시다시피, 편지 소개는 종종 편지의 주장, 편지의 어조, 편지의 느낌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서 서문 옆에 갈라디아서 서론을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 편지들은 유사한 주제가 많기 때문에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중요하고, 의와 모세의 율법,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서문인 1-15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서론, 특히 1-10절과 극적인 차이가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잘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반면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가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그가 그들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매우 다르고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다른 편지에서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지적했듯이 여러분은 이미 바울이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왜 그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까? 그것은 방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그가 편지를 쓴 교회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정교회일 것인데, 이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 독특하고 확실히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대한 감사나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 많은 칭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사랑 하고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명성이 퍼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 동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인지, 떠날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제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구출당하는 것, 어쩌면 현 악한 시대에서 끌려가는 것까지 언급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잠시 다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방문할 계획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는 이전 강의에서 4장에서 그가 교회 창립으로 이어진 매우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독특한 문자 오프닝이며, 이 문자를 다른 문자와 대조할 때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갈라디아서의 수사학을 이해하고 논증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열쇠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의 묵시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갈라디아서의 묵시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일련의 반대, 이율배반, 이러한 반대.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4절에서 바로 시작되는 바울의 묵시적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 신학의 대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울의 묵시적인 틀, 즉 바울이 모든 것을 보는 우주적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즉 우주적 틀이나 종말론적 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약성서나 유대인의 기대를 도표화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성경은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현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통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궁극적인 영적 적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육체의 반대를 경험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니라. 그리고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하는데, 구약성서 사이 유대시대의 유대인들은 모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절정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우주의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현 악한 시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는 시대의 충만함을 가져오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 살롬의 시대에 들어가 창조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온전함의 통치, 부활 생명의 부어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의 사고방식과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을 형성했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일종의 미래지향적 기대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차트입니다.

이 점은 주의 깊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하루가 둘로 나뉘어져 있고 사도들의 설교에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사물을 표현한 방식이며, 이것은 바울의 신학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그리스도 사건이라 불리는 십자가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통치 승전이 오늘, 이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여호와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현시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실제로 도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가 부어진다. 하지만 아주 아주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현 악한 시대는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여전히 미래의 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이 완성되거나 완전히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신학과 바울신학에서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악한 시대는 심판을 받고 멸망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시대 사이의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 사이, 주의 날과 주의 날, 구원의 날과 구원의 날 사이에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중첩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며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밀고 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의 영향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는 시대의 교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즉,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새 시대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 옛 세상을 죽이시고 창조를 이루셨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아야 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갈라디아에서 그들이 주고 있는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왔지만 이 타락한 시대에 속한 범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맨 처음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암시적으로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이 새 시대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와 시대 사이의 이 시간, 여전히 감시되고 현 악시대의 영향력을 느끼는 이 우주 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도 성령의 영향을 받는 이 우주 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육신과 영의 싸움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반드시 각 개인의 내부에 있는 이 두 가지 역동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개인으로서 이러한 효과를 느끼지만 Paul은 이러한 더 큰 역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영역이 공동체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역이 지역사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적 역학, 사회적 영역과 문화적 가치에서의 정체성 구축, 이 모든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주에서 함께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Paul에게 그것은 공간과 공간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이 공간들이 현 악시대의 영향과 사망의 권세와 육신의 권세에 지배되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다.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사회 단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 역학에서,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성령의 영향력과 육신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종말론적 이율배반을 설명하는 더 큰 역동성입니다. 그가 말하는 곳은... 그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임명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러한 시대의 교차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과 당신이 즐기는 결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나오신 세상과 일치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오신 여러분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생각하고,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와 새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한 새 창조 시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갖고 있는 반대적 사고를 설명합니다. 현 악한 시대의 육신에서 나온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시대에서 오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현실로부터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상상할 때 우리는 구원을 나와 관련된 어떤 것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누린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나의 내부 공간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상상하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부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구원을 관리하고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그것은 내 소유입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적이고 현실에 묶인 개념에서 충분히 진실된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무엇보다도 우주에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 죄, 육신, 사망의 세력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 상황에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창조 자체에 영향을 주고 감염시키는 세력이 그 프로젝트를 비참하게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셨을 때, 그것은 그분이 우주의 구조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예수 추종자들의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주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물리친 하나님의 천주적 원수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현실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실현되는지를 생각합니다. . 우주, 기업, 개인.

반면에 우리 서구에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방식은 완전히 개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용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에게 우주는 전략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이율배반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난 것이라고 말할 때 다소 방어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려는 것은 그의 사도적 사명이며, 그의 사도적 부르심은 현실에 도입된 근본적으로 새로운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 있는 반법적 수사에 들어가는 데 약간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교는 성경보다는 현 악한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이 형성된 문화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축한 편견, 일을 성취하고 힘을 사용하고 강압을 사용하기 위해 인간이 구축한 수단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체성이 구성되는 영역이며, 인종, 민족,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교에서 바울은 이들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표현할 기회가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냐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이 영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이 영역을 죽였고 우리를 이 영역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유와 경이로움, 기쁨과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주며, 이는 모두 복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 그것에 도달하세요.

그러나 간단히 말하자면, 바울의 사고방식에서 그는 확실히 인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바울은 비유대인을 유대인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아마도 여성을 남성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으며, 바리새인을 유대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거나 제거하거나 더 순종하도록 강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근본적인 새로움이 생겼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론적 틀에서 비롯된 일련의 이율배반은 존재와 행함, 믿는 것과 순종 사이의 이분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주 접근하려고 하는 이율배반보다 이율배반을 렌더링하는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종교.

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옛 창조와 현 악한 시대와 새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악한 시대와 새 창조.

현재의 악한 시대는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종종 파괴적인 행동, 태도, 자세, 관계 역학, 사고방식 및 문화적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행동, 태도, 자세, 관계적 역동성, 존재 방식 및 행동 방식은 모두 그리스도 지향적 자세 및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묵시적인 프레임워크를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 서문에는 갈라디아서 1-10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는데, 이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합니다. 생명의 충만함인 부활공간을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물론, 교회 공동체는 그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근본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부활을 생각할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총체적인 우주 변화이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과 모든 피조물은 현재 부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현재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활은 바울의 이해를 형성했던 부활의 전체적인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에게 있어 부활의 삶, 죽음으로부터의 삶이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행동 방식, 새로운 관계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전체론적이며, 이는 현대 교회가 새로운 전체론적 존재 방식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망설여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정치적인 단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모인 사람들의 단위로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타인을 향한 정치적 입장과 세계를 향한 정치적 입장.

그러나 그것은 권력 장악, 욕설, 경멸적인 발언의 정치가 아니라 관대함, 사랑, 돌봄, 봉사, 선물 제공, 환대를 지향하는 정치입니다. 슬프게도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 정치는 이 세상의 정치로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환경이 그리스도 안의 새 시대에 완전히 포함된 새로운 환경 대신에 이 시대에 철저히 포함된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전체론적이며 교회 생활의 전체론적인 궤적을 설정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으로 언급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러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 증여는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신학을 통해 실행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자기를 내어주는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기도 하며,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써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역동성.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기도 소원을 언급합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영광에 대한 이 비밀스럽고 아주 간략한 언급은 일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과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레나이우스의 인용문이 생각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롬이 이 땅에 퍼지는 것을 주관하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라디아 논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일종의 논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닌 이방인 땅, 비유대인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 전통을 신실하게 따르고, 할례를 받고, 기본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비유대인으로 남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교도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공동체를 이교의 공동체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지만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기독교 복음의 온전한 일관성을 봅니다.

터키의 예수 추종자, 이집트의 예수 추종자, 시리아의 예수 추종자 등 복음이 발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가면서 바울은 책망을 시작하지 않고는 6절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6절부터 10절까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바울의 책망입니다. 6절에서 그는 이러한 즉각적인 전환과 매우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즉시 그들을 배반했다고 비난합니다. 이 변절은 바울이 방금 말한 전달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인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사 이 새 세대로 인도하신 분이시니 그들을 버린 자들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탈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노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지지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것이 실제로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이는 이곳 갈라디아 공동체에 와서 그들을 뒤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동요시키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기독교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비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의 공동체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공동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혀 말을 아끼지 않고 8절과 9절에서 이중 저주를 선고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과 그의 사도 사역 팀,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있다면, 우리가 첫 방문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게 놔두세요.

그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수선한 언어이고 무례한 언어입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수사법이다. 그는 이것이 그들을 약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실제로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저는 수업시간에 갈라디아서를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 그룹이 신학적인 스펙트럼에서 그들과 매우 가까운 누군가와 많은 신학적 합의를 가질 수 있는 기독교 상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 가지 좁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불신앙과 성경을 빠르고 느슨하게 다루는 것에 대한 비난의 수준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해도 괜찮나요? 나는 반드시 그것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매우 주저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적 사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런 종류의 특권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독한 특정한 사고 방식,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교회가 경제적 억압이나 착취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방식, 즉 사람들이 억압받고 인류가 타락하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촉진하고 이에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에 비추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한 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저합니다.

주의해서 진행하세요. 글쎄요, 바울은 여기 10절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제가 방금 바울이 이 공동체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나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남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인기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은 바울 자신의 자아 개념에 따르면 그는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물리적 세계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는 그가 이러한 용어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주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안전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죽었습니다. 그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에 초점을 맞춘 이 새로운 영역에 있으며, 이는 그에게 청중이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를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악한 시대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인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글쎄, 바로 거기에서 멈춰라.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0절입니다. 이 서문에서 바울은 매우 갑작스럽게 시작하여 청중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의 논증의 본질로 넘어갈 것입니다.